

광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속도'

서구, '설립 타당성 인정' 결론...9월까지 절차 마무리
남구, 시 협의 뒤 연구 용역 의뢰...11월까지 설립 등기
북구, 연내 설립 뒤 단계별 확대...광산구, 7년째 운영

광주 자치구들이 공공 시설물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본격 나섰다.

8일 광주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남구·북구는 올해 말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서구는 최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4개 분야·6개 사업에 대해 추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 업체가 아닌 공단이 맡을 경우, 조직·인력 일원화로 인건비가 절감되고 인찰비용·위탁업체 이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존의 민간위탁 업무 운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 고용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 시설물 관리·생활폐기물 처리 등 기존 위탁 사업자보다 책임성을 가질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계획 상,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시설 3곳, 공영주차장·유계 승강장 등 교통시설 2곳, 서구문화센터, 기타 시설 2곳 등이다.

서구는 앞으로 주민공청회, 설립심의회, 조례 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른 설립 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

사무실 임차 경비, 자본금 출자 등의 초기 재원은 1차로 추가 경영예산을 통해 확보한다. 운영 인력 채용 및 공유재산·위탁 사무 인수인계 계약을 거쳐 내년 1월이면 업무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서구는 내다봤다.

남구도 민간위탁·직영 형태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8월 광주시와 1차 사전 협의를 마쳤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는 오는 7월께 나온다. 신설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2조에 따른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관리를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구에서 해당되는 대상은 체육·복지·환경·생활·교통 5개 분야, 7개 사업 가량이다.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광주 서구가 지난 2일 구청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있다.

후 검증 심의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8월 안에 설립심의위가 구성된다. 이후 9월 남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11월까지 임원 공모·설립 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북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놓고 연구 용역이 한창이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 사무 관련 소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시설관리공단이 맡을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우선 1단계(예정)로 4개 분야·7개 사업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상암읍 현수막 지정계시대·지정벽보판·공영주차장·우산수영장·태봉생활체육관·체력인증센터·종량제 봉투 등 남부필증 판매 등 업무다.

이후 공단이 공식 출범하면, 북구문화센터, 반다비복합체육센터, 북구종합운동장 등 관내 각종 생활SOC 시설을 전담 관리한다. 3단계 사업엔 생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현 위탁 사무를 인수하고 유계승강장까지 관

리하는 계획이 담겼다. 북구는 오는 7월말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확정, 용역 결과 검증 심의회를 연다. 구민 의견 수렴·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치면 오는 11월까지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 2014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4개팀(경영지원·문화체육·교통환경·시설관리) 규모로 지난달 말 기준 194명이 근무 중이다.

광장 사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계승강장·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현수막지정관리대·지정벽보판 관리 ▲종량제 봉투·남부필증 판매 ▲빛고를국민체육센터·첨단다목적체육센터·광산농악전수교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이다.

반면, 동구는 현재까지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잠정 판단, 당분간 추진 계획이 없다.

임형택기자

동구-조선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맞손'

광주 동구는 조선대학교, ㈜와이드브레인과 동구지역 캠퍼스 중심 스마트문화도시사업의 실증서비스 개발지원을 위한 2021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정혜원 ㈜와이드브레인 대표, 김병규 동구행복재단 대표, 박현주 조선대 사법대학장 등이 참석했으며 상호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서구 "해빙기 포트홀 선제적 정비" 추진

광주 서구가 해빙기에 급증하고 있는 포트홀(도로파임)로 인한 차량주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제적 도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 노후화, 동결, 팽창 등에 의해 표면이 침하 또는 탈락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차량 타이어 훼손 유발은 물론 차량 급정차 방향 변경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2월부터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해 포트홀 405개소의 정비를 마쳤고, 파손이 심한 서창고차로 주변 등에 대하여는 춘계 도로정비 기간 중 전면 재포장(A=3,940㎡)을 실시하는 등 도로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구, 공유 주차 1500면 실시간 확인 시스템 만든다

광주 남구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내 공영 주차장 42곳의 1,500개 주차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먼저 남구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공유 주차 솔루션을 구축한다. 관내 공영 주차장 42곳의 1,500개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 주민들 모두가 모바일을 통해 공유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비대면으로 사전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차량 주차시 차량 번호를 추출해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솔루션도 구축할 예정이다.

북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광주 북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을 돕고자 마련됐다.

희망키움통장 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통장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근로를 조건으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28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가 매월 20만 원(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가능)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광산구, 구내식당 반찬 '행복더하기 나눔 반찬' 사업

광주 광산구가 구내식당 반찬을 필요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행복더하기 나눔 반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 직원들의 가정 반찬 준비 걱정을 덜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소액 기부까지 연결하는 내용.

광산구청 지하 1층 구내식당은 매주 월~금요일 하루 평균 520인분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구청 직원들의 점심 식사 뒤, 남은 음식은 지금까지 잔반으로 전량 폐기돼왔다.

광산구는 연간 460여만원 드는 처리비용의 60% 정도를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임형택기자

'50년 전 광주는' 사라진 옛모습 기록물로 공개

광주시가 사라진 광주의 옛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반세기 전 빛바랜 기록물들을 8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못하고 지친 시민들을 위해 기록을 통해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가는 추억 광주'라는 주제로 옛 기록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 기록관에 보존중인 사료들로, 이번에 공개된 기록 3건. 1970년 사직공원 동물원 내 풀장 공사 전경 사진과 입장권 모형도, 1965년 구동체육관 개관 시 사진 등이다. 사직동물원은 1971년 광주공원의

사직단 자리에 건립됐으나, 이후 사직단 복원 여론에 따라 1991년, 현재 우치공원으로 이동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개원하기 1년 전인 1970년 동물원 내의 풀장 조성공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 모형도에서는 1970년대 풀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성인 100원, 학생 50원, 어린이 30원으로 하루 1회 입장이 가능했다. 1970년 살갓이 한 가마니에 2880원, 라면 20원, 짜장면 100원, 시내버스 요금 10원임을 감안하면 당시 풀장에서 한번 논다는 것은 성인 기준 라

면 5봉지나 짜장면 1인분을 사거나 시내버스 10번을 타는 것과 같았다.

입장권 발매와 회수방식도 알 수 있다. 발권 시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직원이 날인하고, 입장 시에는 입장권 재사용 금지를 위해 개찰원이 입장권을 절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동체육관은 1965년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광주공원 입구에 지어졌던 실내 체육시설로 주변 국밥집들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현재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자리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1965년 건립 당시 제46회 전국체



사진 왼쪽은 1970년 사직공원 동물원 입장권 모형도, 오른쪽 위는 사직공원 풀장 공사 모습, 아래는 1965년 구동체육관 개관 당시 사진. (사진=광주시 제공)

육대회를 개최한 구동체육관 당시의 모습과 한복차림의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최윤희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99.50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1.12
 3. 사업운영기간 : 2021.12~2046.12(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1.03.05.~2021.03.15.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 으로 인차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ilyang00@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리8호 태양광발전소	성영자	99.50	전남 나주시 봉황면 신원리 1,346㎡/14,367㎡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본건강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다양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남아서 지내지 마세요!